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거듭 태어나다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제10차 정기총회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중세 유럽시대 ‘귀족들의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중세의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21세기 한국으로 훌쩍 넘어와 제과업계의 기술 대표주자 ‘한국제과기능장협회’가 추구하는 올해의 가장 큰 화두가 됐다.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제10차 정기총회 및 ‘제과제빵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의가 이루어진 워크숍을 다녀왔다.

글과 사진_김미선 기자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중세 유럽시대 ‘귀족들의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어려울 때일수록 한발 앞선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품고 있다. 중세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21세기 한국으로 훌쩍 넘어와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제과업계의 기술 대표주자 ‘한국제과기능장협회’가 추구하는 올해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이다.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유현식, 이하 기능장협회)는 지난 7월 16일 서울 역삼동 삼성호텔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 주재근 부회장을 비롯해 (재)과우학원 조성민 이사장, 한국제과학교 홍행홍 교장 등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내외빈이 참가해 한국제과기술을 이끄는 제과기능장협회의 10돌을 축하했다.

유현식 회장은 총회의 기념사를 통해 “기능장협회는 한국 제과기술의 선두에 선 그룹인 만큼 어려울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발휘해 업계 전체를 위해 후배양성·신기술 개발 등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장에 모인 제과기능장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할 일이 더욱 막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기능장으로서의 명예에 따른 전체 업계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시 한 번 곱씹었다.

이날 기능장협회는 제37차 기능장시험에서 합격한 23명의 신입회원 환영순서를 갖고 기능장 선배들이 직접 나서 신입회원들의 가슴에 배지를 달아주고, 유현식 회장이 신입회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회원증을 전달하며 축하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기능장협회는 박찬희 전임 회장이게 지난 임기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한 감사패를, 안창현 기획처장에게 국제기능올림픽 심사위원으로의 활약을 기리는 공로패를 각각 전달했다.

올해 기능장협회는 예년과 달리 총회 하루 전부터 숙식을 함께 하며 ‘제과제빵 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강연을 맡은 (주)테이앤테이 김원복 대표이사는 “21세기는 정보 싸움”이라고 강조하고 “제과기능장 또한 원도우베이커리는 물론 전체 업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 기능장들은 삼삼오오 한 조를 이뤄 앞으로 제과업계의 전망 등에 대한 치열한 분임토의에 들어갔다. ☺



1 올해로 10돌을 맞은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정기총회에는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내외빈이 참가해 기능장협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줬다. 2 유현식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회원 모두 업계 리더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5 제37차 기능장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한 23명의 신입회원 환영식. 4 기능장협회는 총회 하루 전부터 숙식을 함께 하며 워크숍을 가졌다.

